



태국, 보험시장 자유화를 위한 외국인 주주 규제 완화

이해랑 연구원

최근 태국 재무부는 보험회사의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과 이사회외의 외국인 구성비 제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을 발표함. 이를 위해 태국 보험회사는 보험감독위원회가 요구하는 적정자본비율, 사업운영 계획 수립 등의 조건을, 외국인 투자자는 신용등급, 전문성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 태국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태국 보험시장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으며, 동남아 시장진출을 고려하는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이러한 규제 변화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태국 재무부는 1월 18일 자국 보험회사의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 및 이사회외의 외국인 구성비에 대한 제한을 완화한다고 발표함.¹⁾
 - 이는 ASEAN Economic Community(AEC: 아세안 경제공동체)²⁾ 출범과 함께 태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보험자유화 조치의 일환임.
 -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태국 정부는 태국 보험산업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관심 확대와 태국 보험시장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음.
- 이번 규제 완화로 보험회사는 금융감독당국이 제시하는 일정 조건 충족 시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을 현재 49%에서 100%까지, 이사회외의 외국인 구성비는 현재의 50%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음.
 - 보험회사가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첫째, 태국 보험감독위원회(OIC: Office of Insurance Commission)가 정한 일정 비율 이상의 적정자본비율(CAR: Capital Adequacy Ratio)을 달성해야 함.
 - 둘째, 보험회사는 적어도 3년 이상의 사업운영 계획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이 계획에는 사업전

1) Lexology(2017. 2. 28), "Thailand Insurance Market Liberalizaion: Relaxation of Foreign Shareholding Limits".

2)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을 의미하며 브루나이, 캄보디아, 미얀마, 필리핀, 라오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으로 구성되어 있음.

략, 리스크 관리, 자본 관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

■ 태국 보험회사에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인 주주가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음.

- 외국인 주주는 보험회사나 보험산업과 관련된 기업으로 보험과 관련한 사업 운영 경험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보험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업이어야 함
 -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A'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아야 함.
- 또한 외국인 주주는 보험회사의 운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명확한 사업 계획과 기술이전 계획이 있어야 하며,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충분한 재무역량을 갖추어야 함.

■ 동 규제 완화 조치에 따라 허가를 받은 태국 보험회사는 사업 운영 및 지분 변화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항도 이행해야 함.

- 보험감독위원회(OIC)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는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생명보험회사는 40억 바트(약 1,300억 원), 손해보험회사는 10억 바트(약 327억 원) 이상의 가용자본을 유지해야 함.
- 보험회사는 외국인 주주 지분율이 5% 이상 변할 경우 보험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하며, 외국인 주주가 20% 이상의 주식을 다른 외국인 주주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험감독위원회(OIC)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또한 특정 태국 보험회사 지분을 소유한 외국인 주주는 그 회사 외 다른 태국 보험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음.

■ 태국 등 ASEAN 지역의 보험시장은 성장잠재력이 높아 국내 보험회사에 매력적인 시장으로서, ASEAN 지역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보험회사들은 이러한 규제 변화를 관심 있게 지켜보아야 할 것임.

- 태국 정부의 이번 규제 완화 조치는 AEC가 추진하는 보험자유화의 일환으로, 향후 AEC의 규제 변화와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임.
- 국내 보험회사들은 해외 시장 진출 및 투자 지역 확대를 위하여 ASEAN 지역의 규제 완화에 관심을 가지고, 그 변화에 주목해야 함. [kiri](#)